

서사 모티프의 분류 체계 연구

—분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윤혜영*

1. 서론
2. 서사 모티프의 이항 대립적 구성
3. 분신 모티프의 변형 구조 분석
4. 분신 모티프群의 분류 체계
5. 결론

국문요약

모티프(Motif)는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인간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러한 모티프를 담고 있는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 다양한 변형들로 파생되며 이는 대중 서사 창작의 원천이 된다. 이와 같은 모티프의 영속성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서사 문학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를 추출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티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며 하나의 관통하는 논리를 가진 체계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은 레비스트로스가 신화의 체계화를 위해 사용한 이항 대립의 논리를 적용하여 모티프 분류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를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항 대립적 주제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들로 보았다. 오랜 시

*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영상미디어 전공 박사과정

간에 걸쳐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모티프에는 주제로서 스스로를 영속시키고 사건을 전개시키는 이항 대립의 긴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모티프에 내포된 이항 대립의 관계는 하나의 모티프와 일련의 유사 모티프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논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주제어 : 서사 모티프, 분신 모티프, 레바-스트로스, 이항 대립, 분류 체계)

1. 서론

본 논문은 레바-스트로스의 신화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서사 모티프들 간의 변형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모티프 분류를 위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티프(Motif)는 서사 문학의 연구에서 이야기의 주제, 소재, 상징 또는 동기 등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티프가 이처럼 다양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서사 안에서 다층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모티프는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서사 안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며, 인물에게 행위의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작은 의미단위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모티프와 관련된 연구는 개별 작가나 작품의 주제에 대한 비평에서부터 모티프를 중심으로 서사의 구조를 밝히고자하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서의 모티프이다. 조스트(François Jost)는 이러한 모티프에 대해 ‘작품 전체에 깊이 스며있으면서도 보다 심층적인 의미’로 정의한다.¹⁾ 모티프

1) François Jost, 이호 역, 『주제와 모티프』, 이재선 편,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

는 인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영속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전승되어 다양한 변형들로 파생된다. 모티프는 서사 문학의 연구에서 내용적 불변소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서사 문학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들을 추출하고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이 보편적 모티프 추출을 위해 선택한 텍스트는 인간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고 자생해온 신화와 민담, 그리고 설화였다.

톰슨(Stith Thompson)은 전 세계의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동물, 금기, 마법 등 22개의 상위 항목 아래 하위 모티프들을 나열하고 있다.²⁾ 톰슨의 모티프 개념을 계승한 프렌첼(Elisabeth Frenzel)은 모티프를 사건을 지시하는 상황 표현의 요소로 정의하고 137개의 모티프를 제시한다.³⁾ 조스트는 프렌첼의 작업을 바탕으로 모티프를 작품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143개의 모티프 목록을 제시한다.⁴⁾ 한편 뎀리히(Horst & Ingrid Daemrich)는 프렌첼이나 조스트처럼 단순히 모티프의 목록을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티프의 기능에 대한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그에 부합하는 256개의 모티프를 제시한다.⁵⁾ 국내에서는 류철균이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대 소설의 창작법을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물, 상황, 행위로 분류된 205개의 모티프를 포함한 디지털 서사 창작도구를 개발하였다.⁶⁾

학과지성사, 2007, 131쪽.

2) Stith Thompson, 윤승준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628~647쪽.

3) Elisabeth Frenzel, 이민수 역, 『세계 문학의 모티프』, 이재선 편,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403~408쪽.

4) 프랑스와 조스트, 이호 역, 『주제와 모티프』, 이재선 편,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418~424쪽.

5) Horst & Ingrid Daemrich, 장수란 역, 『모티프와 주제』, 이재선 편,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408~418쪽.

6) 영화 및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창작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2013년 7월부터 서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서사의 구성요소인 인물과 사건, 상황을 중심으로 모티프를 추출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분류하였다는 데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류가 논리적인 체계로서 기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서사 안에서 어떤 내용적 요소를 인물, 사건 또는 상황으로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렵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사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서사 안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외적 상황과 인물의 내적 성격이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티프의 병렬적 분류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모티프가 시대적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원형적 모티프인지, 아니면 시대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등장한 모티프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모티프가 다른 모티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적이다. 표층에서는 달라 보이는 모티프도 심층을 추적해보면 어떤 하나의 원형적 모티프로부터 파생된 모티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티프 분류를 위해서는 방대한 서사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반복하여 등장하는 모티프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모티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모티프들 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의 신화분석 방법론에 주목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서로 다른 부족으로부터 기원하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신화들이 변형관계를 통해 하나의 신화집단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를 삶과 죽음이라는 인

비스 중이다. www.storyhelper.co.kr 참조.

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항 대립적 주제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들로 보았으며, 이 대립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개별적인 신화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화는 집단에 의해 창작되고 집단의 무의식이 투영된 서사로 개인에 의해서 창작되는 오늘날의 서사와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영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대중서사는 과거의 신화와 같은 역할을 하며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다. 오늘날의 대중서사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다시 쓴 옛이야기가 더 많이 발견된다. 허천(Linda Hutcheon)은 1992년 이후 오스카 최우수작품상의 85%가 각색 작품이며, 에미상을 수상한 주말 TV 영화의 70%가 각색 작품임에 주목한다.⁷⁾ 대중서사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원형적 이야기로의 회귀는 현대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레비-스트로스가 신화라는 옛이야기를 체계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론은 대중서사 창작과 수용의 중심에 있는 모티프의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주제로서 모티프는 방대한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모티프의 체계분류를 위한 방법론의 원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신(分身)’을 모티프 분류 연구에 대표성을 갖는 모티프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분신’이라는 주제가 갖는 원형성이다. ‘분신’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주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분신의 의미로 사용된다. 서양에서 ‘분신’ 모티프는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의 ‘도플갱어(Doppelgänger)’ 모티프로 나타난다. ‘분신’ 모티프는 전 세계의 신화와 민담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로 오비디우스(Ovidius)는 ‘변신(Metamorphosis)’의 관점에서

7)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New York: Routledge, 2013, p.4.

그리스·로마 신화를 정리하기도 했다. 오비디우스가 정의한 변신은 ‘새로운 몸을 얻은 형상’⁸⁾으로 신이나 인간이 본래 자신의 형상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식물, 사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신의 능력은 신화 속에서 신만이 가지는 고유의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형상을 취한다는 것은 신의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분신’ 모티프는 이처럼 신화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모티프인 ‘변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형상을 갖는 ‘분신’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며, 이 때문에 ‘분신’은 죽음과 결부된다. 서양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게 된다는 법칙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분신’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제이다⁹⁾. 서양에서는 도플갱어를 인간의 육신을 떠난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고대로부터 인간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육신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믿었다.¹⁰⁾ 분신 모티프는 하나의 육신에 하나의 영혼을 담으려는 생명 본능과 육신을 벗어나 영혼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자 하는 죽음 본능이라는 인간의 이중적 본능을 상징하는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즉, ‘분신’ 모티프에는 삶과 죽음의 대립이라는 근원적 대립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모티프 분류체계 연구의 시발점이자 상위 계층의 모티프로서 대표성을 갖는 모티프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장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모티프가 어떻게 이항 대립적 구성을 통해 체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구

8) Ovidius, 천병희 역,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도서출판 숲, 2006, 24쪽.

9) 박혜영,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분신테마 연구』, 『사회과학연구』 3권 1호,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301쪽.

10) 다케루베 노부야키, 임희선 역, 『판타지의 주인공들』, 들녘, 2000, 134쪽.

체적인 영화 서사를 중심으로 ‘분신’ 모티프의 이항 대립적 구성과 변형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분신’ 모티프群의 체계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서사 모티프의 이항 대립적 구성

레비-스트로스는 신화 체계의 논리적 구조를 찾기 위해 이항 대립과 변증법적 논리를 사용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적 사고가 삶과 죽음과 같은 몇몇 대립관계에서 생성되고 점진적 매개를 지향한다고 보았다.¹¹⁾ 신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립을 이루는 양 극단 사이에 매개항을 놓음으로써 이 대립을 해소하려 한다. 또한 매개항은 대립하는 두 항의 자질을 모두 가진 양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신화 속에서 매개항으로 등장하는 행위자를 트릭스터(trickster)라고 부르는데, 트릭스터는 대립하는 두 항의 자질을 모두 지닌 양가적인 존재이다. 예를 들어, 보로로 신화에서 트릭스터로 등장하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는다는 점에서 포식동물(동물적, 수렵)이지만 자신이 먹는 것을 죽이지 않은 점에서는 초식동물(식물적, 농경)의 자질을 보인다.¹²⁾ 매개항으로서 여러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트릭스터의 존재는 신화들 사이의 변형관계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매개항으로서 트릭스터는 두 항의 자질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항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형이 가능하다.

11) Claude Levi-Strauss, 임봉길 역, 『신화학1』, 한길사, 2005, 55쪽.

12) Claude Levi-Strauss, 임봉길 역, 『신화학1』, 한길사, 2005,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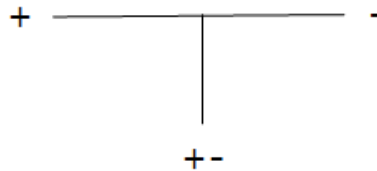


그림1. 이항 대립과 매개항의 구조

주제적 단위로서 모티프 역시 이항 대립적 특성을 지닌다. 모티프의 이항 대립적 특성은 이미 앞선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뎀리히는 모티프의 일곱 가지 기본 조건 중 하나로 양극 구조(polarstruktur)를 이야기한다. 모티프는 상이한 감정들을 긴장된 망으로 농축시키고, 철저히 대립적인 의미 관계를 성립시킨다.¹³⁾ 서사 안에서 이 대립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건 발생의 원동력이 된다. 모티프에 해결되어야 할 대립 관계를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 대립의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모티프에 내재한 동기작용이다.

‘분신’ 모티프의 경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찾아낼 수 있는 이항 대립은 ‘육체’와 ‘정신’의 대립이다. 육체와 정신의 대립은 인간의 오랜 이분법에서 비롯된다. 영혼은 신화시대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던 심리적 산물이고,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관념이었다.¹⁴⁾ 인간은 하나의 육신에 하나의 정신만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목격하는 일’은 육체와 정신의 일대일 대응을 위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은 ‘육체’와 ‘정신’의 대립에 긴장을 부여하고 ‘분

13) Horst & Ingrid Daemrich, 장수란 역, 『모티프와 주제』, 이재선 편,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151쪽.

14) Sigmund Freud,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3, 130쪽.

신' 모티프의 이야기가 긴장 해소를 위한 결말로 나아가게 한다. '분신' 모티프의 이야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육체'와 '정신'의 일대일 대응을 회복하는 결말로 나아간다.

이와 같은 '육체'와 '정신'의 일대일 대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신뿐이다. 앞서 '분신'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라는 견해를 살펴본 바 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불멸의 신은 늙어가는 인간의 육체에 갇혀있지 않고 언제든지 육신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때문에 '분신' 모티프의 이야기에서 자신과 같은 육체를 가진 도플갱어를 목격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분신' 모티프의 이야기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대립하는 불변항을 중심으로 '진정한 자아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려 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원적인 주제는 '육체'와 '정신'의 대립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긴장관계를 통해 '분신' 모티프의 이야기群을 형성한다.

레비스트로스는 대립항과 매개항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신화들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표1의 공식을 제안한다.

$F_x(a) : F_y(b) \approx F_x(b) : F_a^{-1}(y)$ <p>x, y = 기능 / a, b = 신화에 등장하는 주체</p>
--

표1. 신화적 변형의 일반식(Canonical Formula of Mythical Transformation)¹⁵⁾

이 공식에서 a와 b는 신화에 등장하는 주체를 나타내며, x와 y는 이 주체들의 신화 속에서의 기능을 나타낸다. 이 공식에서 $F_x(a)$ 는 a라는 인물이 x라는 기능을 수행하며, $F_y(b)$ 는 b라는 주체가 y라는 기능을 수

15) Claude Levi-strauss, 김진욱 역,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3, 217쪽.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 a 와 b , 기능 x 와 y 가 서로 대응하며 한 신화 안에 형성된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이 공식은 $Fx(a) : Fy(b)$ 라는 대립관계를 갖는 신화가 어떻게 $Fx(b) : Fa^{-1}(y)$ 라는 대립관계를 갖는 신화로 변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Fa^{-1}(y)$ 는 원래는 주체였던 a 가 역전된 값을 갖으며 기능으로 도치되고, 기능이었던 y 가 주체로 도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approx 는 신화 $Fx(a) : Fy(b)$ 와 $Fx(b) : Fa^{-1}(y)$ 의 사이에 a 와 b , x 와 y 라는 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갖는 수많은 매개적 신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형의 방식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신화적 사고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¹⁶⁾ 또한 매개항의 개입은 신화의 체계 안에서 두 개의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신화의 연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화들은 서로 간의 점진적 매개를 통해 하나의 신화群을 형성한다.

이 공식을 같은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群에 적용해보면 a 와 b 는 서로 다른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물이 되며, x 와 y 는 하나의 모티프를 구성하는 대립하는 기능 요소가 될 것이다. 분신 모티프의 경우 a 와 b 는 같은 육체를 가진 두 인물, x 와 y 는 육체와 정신이 된다. 이처럼 하나의 모티프는 이항 대립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대립구조는 이야기에 긴장을 부여하고, 모티프 변형의 근본 구조로 작동한다. 이러한 모티프의 이항 대립적 구조가 실제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티프를 구성하는 두 대립적 불변항을 중심으로 서사가 어떻게 변형되며 새로운 모티프로 파생되는지 분석해보아야 한다.

16)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예술인류학』, 동아시아, 2009, 99쪽.

3. 분신 모티프의 변형 구조 분석

레바-스트로스는 신화분석의 과정에서 일련의 천문학적 코드를 가진 신화들과 맞닥뜨리는데, 천문학적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신화도 잠재적으로 천문학적 코드를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신화는 질병의 기원으로서 ‘어머니’에 관한 보로로 신화 M5¹⁷⁾이다. 또한 레바-스트로스는 다른 신화에서 M5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천문학적 요소인 무지개를 찾아내고 이 둘 사이의 변형관계를 증명하려 한다. 남아메리카 신화에서 무지개는 비가 그쳤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질병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책임자로 여겨진다. 또한 무지개는 다른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살인적인 뱀과 동일시된다. 이때 ‘어머니’에서 ‘무지개’로의 변형을 매개하는 것이 신화 M87~109에 등장하는 ‘사리그’라는 동물이다.

		신화소(기능)	
		양육자(n)	악취(m)
주 체	보로로 신화 M5(어머니)	아들을 버리고(-n)	질병을 퍼트린다(2m)
	보로로 신화 M87~109 (사리그)	좋은 양육자이지만(n)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m)
	남아메리카 신화(무지개)	살인적인 뱀과 동일시되며(-2n)	질병의 책임자로 여겨진다(2m)

표2. 레바-스트로스 신화 변형 분석 사례

17)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죽은 물고기를 주우러 가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나뭇가지 위에 버린다. 그녀는 개울가에서 모든 물고기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자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녀가 고통으로 신음하며 비명을 내지름과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질병들이 빠져나온다. Claude Levi-Strauss, 임봉길 역, 『신화학1』, 한길사, 2005, 183쪽.

사리그는 보로로 신화에서 어머니의 변형으로 나타나는 동물이다. 양육자로서 사리그는 생명(삶)에 기여하며, 악취를 풍기는 썩은 동물로서 사리그는 죽음을 예견한다.¹⁸⁾ 이때 레비-스트로스는 양육자와 악취를 대립하는 두 개의 기능으로 보고, 이 두 기능을 중심으로 신화들 간의 변형관계를 파악하였다. 우선 삶에 기여하는 양육자로서 사리그의 기능을 n 이라고 했을 때, 이 기능 값을 역전시키고(- n), 강화함으로써(- $2n$) 살인적인 뱀으로 변형된다. 또한 악취를 풍기는 사리그의 기능을 m 이라고 했을 때, 이 기능 값을 강화함으로써($2m$) 질병의 책임자로 변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리그와 무지개라는 전혀 다른 주체 간의 변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분신 모티프에 레비-스트로스의 변형공식을 적용시켜보면 육체와 정신의 대립은 ‘육체가 같다’와 ‘정신이 다르다’라는 기능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두 기능은 강화와 약화, 역전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파생이 가능하다. 이때 이야기들의 변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분신 모티프의 가장 원형적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신 모티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본체와 분신의 육체는 같지만, 정신은 다르다’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인물	$a =$ 육체와 정신의 본체	$b =$ 분신
기능	$x =$ 육체가 같다	$y =$ 정신이 다르다

표3. 분신 모티프의 구성

〈베로니카의 이중생활〉(La Double Vie De Veronique)은 분신 모티프의 원형적 값을 가진 영화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두 베로니

18) Claude Levi-Strauss, 임봉길 역, 『신화학1』, 한길사, 2005, 472쪽.

카는 각기 다른 국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날 폴란드의 베로니카는 자신의 분신인 프랑스의 베로니카를 알아보고 죽게 된다. 폴란드의 베로니카가 죽자 프랑스의 베로니카는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린다. 그러다 베로니카는 우연히 한 사진을 통해 자신의 분신에 대해 알게 되고 베로니카의 남자친구는 베로니카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만든다. 그리고 인형이 닮을 것을 걱정해 베로니카의 인형을 두 개 만든 남자친구를 보고 베로니카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한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은 서로 육체는 같지만 정신은 다른 전형적인 분신 모티프의 인물을 다루며,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분신 모티프의 원형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인간 육체의 유한함과 보잘 것 없음에 대한 냉소, 인간의 자아는 정신에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폴란드 베로니카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프랑스의 베로니카를 통해 살아간다. 이러한 주제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을 통해 불멸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닿아있다.

이와 같은 육체보다 우위에 있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공상 과학 장르의 발전과 함께 ‘복제인간’, ‘감정을 가진 로봇’과 같은 모티프로 파생된다. 바로 영화 <아일랜드>(The Island)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복제인간’을 다룬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육체에 방점이 찍힌 도구적 존재가 아닌 정신에 방점이 찍힌 주체적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복제인간’ 모티프를 통해 드러나는 분신의 주제는 공상 과학 장르 안에서 로봇이나 복제인간에 정신을 이식하는 <써로게이트>(Surrogates)와 이야기로 파생된다. 여기서도 정신이 불멸하는 삶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주제는 유지된다.

	육체는 같지만(x)	정신은 다름(y)	분신 모티프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육체는 같지만(x)	정신은 다름(y)	분신
	폴란드의 베로니카와 프랑스의 베로니카	서로 다른 삶을 영위	
〈아일랜드〉	육체는 같지만(x)	정신은 다름(y)	복제인간 (분신 모티프의 시대적 변형)
	의료 목적으로 복제된 주인공	복제인간으로서의 삶을 버림	
〈데이브〉	육체는 같지만(x) or (+x)	정신은 다름(y)	분신 or 위장
	쌍둥이처럼 닮은 데이브와 대통령	이기적 성격의 대통령과 이타적 성격의 데이브	
〈시스터 액트〉	육체는 같기도 다르기도(+x)	정신은 다름(y)	위장
	수녀복을 입으면 수녀 벗으면 밤무대 삼류가수	이기적 성격의 들로리스와 이타적 성격의 수녀들	
〈미세스 닷파이어〉	육체는 같기도 다르기도(+x)	정신은 같기도 다르기도(+y)	위장
	특수 분장 기술을 활용한 분장, 변장	보모라는 역할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면에서 아빠와 같지만 아내의 연애를 방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름	
〈리플리〉	육체는 다르지만(-x)	정신은 같기도 다르기도(+y)	위장
	리플리는 디키와 전혀 다른 외모를 갖고 있지만 디키를 연기함	리플리는 자신이 디키라고 믿기도 하고 한편으로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함	
〈탄생〉	육체는 다르지만(-x)	정신은 같음(-y)	환생
	자신이 죽은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소년	소년은 주인공의 죽은 남편을 연기함	
〈비밀〉	육체는 다르지만(-x)	정신은 같음(-y)	빙의
	딸 모나미의 육신	엄마 나오코는 집에서는 아내로 밖에서는 딸로 살아감	

표4. 분신 모티프 영화의 변형 관계

‘육체는 같지만 정신은 다르다’가 분신 모티프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원형으로부터 기능과 인물의 자리가 도치된 영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본체인 a의 자리를 분신인 b가 차지하게 되고, a는 역전된 기능인 a'로만 남게 된다. 즉, 더 이상 두 개의 같은 육체가 등장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육체와 정신의 본체로서 a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는 육체의 대한 정신의 우위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a의 값이 역전되어 기능의 자리로 도치되고, 분신(b)이 주체의 자리로 도치된 이야기는 반대로 정신에 대한 육체의 우위라는 주제를 전달한다.

이처럼 각 기능의 값과 위치가 변화함으로써 분신 모티프는 새로운 모티프로 파생된다. 바로 ‘환생’ 모티프와 ‘빙의’ 모티프가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분신 모티프 육체는 같지만(x), 정신은 다른(y)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면, 환생 모티프와 빙의 모티프는 육체는 다르지만(-x), 정신은 같다(-y)는 정반대의 기능을 갖는다. 이 경우 본체로서의 육체(a)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다름은 육체의 외적인 다름이 아닌, 잘못된 육체에 깃든 정신의 문제가 된다.

빙의를 모티프로 하는 영화 〈비밀〉(秘密)은 교통사고로 자신의 육체는 죽고 정신이 딸의 육체로 들어가게 된 중년여성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딸인 척하지만 남편은 곧 딸 안에 자리한 아내의 정신을 알아본다. 주인공은 딸의 모습으로 남편과 사랑을 나누지만 곧 딸의 육체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다. 앞서 원형적 분신 모티프가 육신에 우위에 있는 정신의 삶과 정신의 불멸을 이야기 했다면, 〈비밀〉의 주인공은 정신의 삶이 아닌 육체의 삶을 선택한다. ‘빙의’ 모티프에서도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멸에 대한 욕망이라는 주제는 계속되지만, 기능의 역전으로 인해 불멸은 더 이상 정신의 통일성에 의해 획득

되지 않는다. 육체를 옮겨간 정신은 새로운 자아를 획득함으로써 삶을 지속한다.

환생을 모티프로 한 영화 <탄생>(Birth)에서도 이와 같은 주체의 역전은 나타난다.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이 죽은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소년을 만난다. 주인공은 믿지 않지만 소년이 보여주는 자신만 아는 남편의 모습을 소년에게서 발견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영화는 결말에 가서 소년이 남편의 편지를 읽고 연기한 것이라는 논리적 해결을 제시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소년이 주인공에게 보낸 사과의 편지를 통해 소년이 사실은 정말 남편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이 경우 남편은 결국 소년으로서 삶, 육체에 걸맞은 삶을 선택한 것이다.

빙의 또는 환생 모티프가 분신 모티프의 기능 도치에 의한 변형에 해당한다면 이를 매개하는 매개항이 존재해야 한다. 바로 '위장' 모티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항이 매개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두 항의 값을 모두 갖는 양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매개의 기능을 하는 모티프는 '육체의 같음과 정신의 다름', '육체의 다름과 정신의 같음'의 값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의적 모티프는 바로 '육체가 같거나 다르고, 정신도 같거나 다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적, 정신적 위장이다. 보로로 신화에서 트릭스터적 성격을 가진 사리그가 M87~109라는 다양한 신화에 걸쳐 등장했던 것처럼 위장 모티프의 이야기는 분신 모티프나 빙의 모티프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미세스 닌아웃파이어>(Mrs. Doubtfire)와 같은 영화를 들 수 있다. <미세스 닌아웃파이어>에서 철없는 아빠인 주인공 다니엘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일주일만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엘이 선택한 해결

책은 아이들의 유모로 분장하는 일이다. '위장'의 관점에서 '분장'은 트릭스터적이다. 타고나길 같은 외모로 태어난 두 베로니카나, 딸의 육체에 완전히 빙의한 영화 <비밀>의 주인공과 달리 다니엘은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유모 사이를 수시로 오간다. 내면적으로도 이 같은 양의성이 나타난다. 유모와 아빠는 다르지만 양육자는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유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아이들과 친구처럼 어울리기만을 좋아하는 아버지에서 책임감 있는 양육자로서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과 <미세스 다웃파이어> 사이에도 매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 대립항 중 한 항만이 양의적 값을 갖는 경우이다. 영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의 경우가 그러하다. 밤무대 여가수인 들로리스는 우연히 갱단 두목의 살인현장을 목격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수녀원에서 수녀로 위장한다. 이 경우에도 위장은 분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녀복이라는 일종의 제복(uniform)은 특수 분장만큼이나 주인공에게 강력한 위장의 효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들로리스는 수녀원의 답답한 생활을 참지 못하고 밤이면 수녀복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원래 생활로 돌아가려 한다. 수녀복이라는 위장은 강력한 위장의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쉽게 위장을 벗겨버릴 수도 있는 매개체이다. 하지만 양육자라는 정신적 공통분모를 가졌던 <미세스 다웃파이어>와 달리 수녀와 밤무대 가수는 정신의 정반대의 대립관계 즉, 다름을 보여준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과 <시스터 액트> 사이에도 매개를 설정할 수 있는데, 바로 <데이브>(Dave)와 같은 영화이다. <데이브>는 '왕자와 시종'이라는 민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로 주인공 데이브는 대통령과 쌍둥이처럼 외모가 일치한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이나 가치관은 다

른 정반대의 인물이다. 육체는 같지만(x) 정신은 다르다(y)는 분신 모티프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데이브가 태도나 말투와 같은 대통령의 사회적 육체를 위장한다는 면에서 위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데이브>와 같은 이야기는 분신과 위장 사이의 경계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미세스 아웃파이어>와 <비밀> 사이에도 매개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x의 기능에 역전이 일어나고, y의 기능도 역전을 향해 나아가는 <리플리>(The Talented Mr. Ripley)와 같은 영화가 있을 수 있다. 영화 <리플리>의 주인공은 육체는 다르지만(-x) 정신은 같기도 다르기도(+y) 위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난한 하류층의 삶을 사는 주인공 리플리는 부잣집 도련님 디키의 삶을 욕망하게 된다. 이 욕망은 견잡을 수 없도록 커져서 리플리는 디키를 살해하고 스스로 디키가 된다. 이 과정에서 리플리는 자신이 진짜 디키라고 믿는 동시에 자신의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정신분열적 상태로까지 치달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신’ 모티프는 새로운 모티프를 파생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확장된다. 이러한 변형은 원형적 형태에서 통시적으로 발전해간다고 보다는, 공시적으로 그 관계만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레비-스트로스 역시 여러 신화를 그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논리적 관계만을 따져 체계화하고 있다. 모티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의 모티프 분류에서는 ‘위장’ 모티프와 ‘빙의’는 서로 다른 모티프로 분류되지만 모티프의 이항 대립적 구성을 활용하면 그 변형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모티프 분류를 위한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신 모티프에서 빙의 모티프로의 변화는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에서 정신에 대한 육체의 우위라는 주제적 변화를 동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은 어디까지나 공시적인 변형이지 통시적인 것이 아

니다. 이러한 모티프의 변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인간의 다른 관점을 보여주며, 삶의 주제의식에 대한 은유로서 기능한다.

4. 분신 모티프群의 분류 체계

E. M. 포스터(E. M. Foster)는 소설이 다루는 인간사의 보편적인 주제로 삶과 죽음, 사랑, 음식, 수면을 제시한다.¹⁹⁾ 그 중 삶과 죽음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대립 관계로 인간의 모든 문화와 삶의 과정은 이 최초의 원형적 대립관계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하고 중재하려는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삶과 죽음의 대립을 인간 정신과정의 기저에 있는 본능과 연결시킨다. 프로이트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의 대극성을 인정하고 성적 본능이 그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성적 상징으로 가득 찬 것도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중재하는 것이 성적 본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성적 본능은 서사적 주제로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대변된다. 방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삶과 죽음,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이항 대립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병렬적으로만 제시되어 왔던 서사 모티프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거대한 작업에 앞서 4장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육체와 정신의 같음과 다름이라는 대립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분신 모티프와 유사 모티프들을 분신 모티프群으로 정리해보고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앞선 연구를 통해서 분신 모티프와 유사한 모티프들을 추려낼

19) E. M. Foster,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75, 55쪽.

20) Sigmund Freud,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328쪽.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프렌첼	꼭두각시, 이중 자아, 인조인간
템리히	가면, 변장과 이중역할, 변신, 자아분열
조스트	가면, 변신, 역할 연극놀이, 자동동체
류철균	경계성 인격장애, 빙의, 도플갱어, 변장, 신분 위장, 복제인간, 다중인격, 사람이 된 인형

표5. 분신 모티프와 유사 모티프들

위장 모티프를 매개로 한 분신 모티프와 빙의 모티프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표4의 모티프들을 정리하면, 세 모티프와의 관계 안에서 각 모티프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우선 복제인간과 사람이 된 인형, 인조인간과 같은 모티프는 육체는 같지만 정신은 다른 분신 모티프를 과학적, 마술적 상상력으로 강화한 것으로 결말에 가서 내면의 삶이 선택되는 분신 모티프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편 가면, 변신, 변장, 이중역할 모티프의 경우에는 위장 모티프의 하위 모티프로 위장 모티프의 트릭스터적인 특징이 모티프 그 자체에 드러난다.

꼭두각시 모티프의 경우 꼭두각시라는 대리 자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육체는 다르지만, 정신은 같은 빙의와 유사한 방식의 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빙의의 경우와 달리 꼭두각시의 경우 언제든지 대리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두각시 모티프는 그림2와 같이 빙의와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지만 빙의 모티프가 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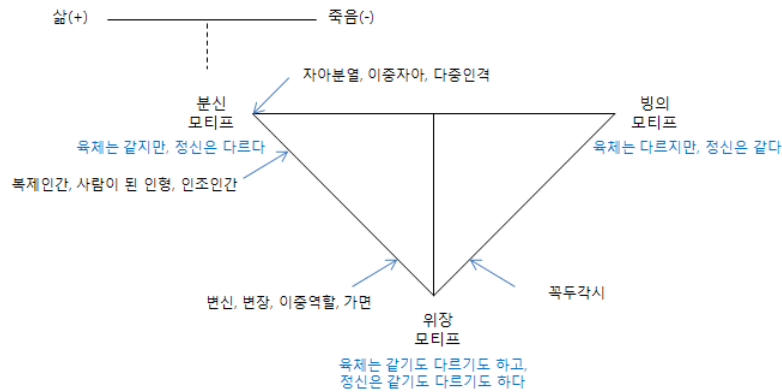


그림2. 분신 모티프群 모티프들의 변형 관계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자아분열, 이중자아 모티프이다. 분신 모티프의 원형적인 형태가 육체적인 분신이라면, 자아분열과 이중자아 모티프는 정신적인 분신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갖지만 두 모티프 모두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과 하나의 육체에 하나의 정신만 이 깃들어야 한다는 분신 모티프의 원형적 주제를 전달한다.

분신 모티프群의 이야기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원형적 주제로 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멸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파생된 이야기 집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사 모티프 전체는 하위 모티프群의 집합으로 분류될 수 있고, 하위 모티프群은 또 다시 하위 모티프로 세분화되는 수형도의 구조로 체계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유사한 모티프들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가장 원형적인 형태를 추출한다. 그리고 원형적 형태의 모티프에서 이항 대립 논리의 골조가 될 불변항을 추출하고, 유사 모티프들 사이의 변형 관계를 분석하여 하나의 모티프群을 조직할 수 있다. 나아가

각각의 모티프群은 삶과 죽음이라는 최초의 대립관계로부터 파생된 전체 모티프 체계로 구성이 가능하다.

5. 결론

모티프의 영속성과 변화는 모티프를 연구해왔던 여러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레바-스트로스와 프로프처럼 신화나 민담, 설화 속에서 모티프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고 이들을 하나로 체계화할 논리적 틀을 세우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대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이야기의 양적 방대함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집단이 투사된 신화나 민담과는 달리 이야기에 작가 개인이 투사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티프 연구는 주로 개별 모티프나 개별 작가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비평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모티프 연구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야기 분석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과 함께 창작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컴퓨터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체계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레바-스트로스의 이항 대립의 논리를 활용해 모티프 분류 체계를 위한 방법론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이항 대립 논리는 구조주의 방법론의 근간으로서 이야기의 주제라는 복합적인 연구대상을 파악하기에 너무 단순한 논리 구조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층적인 대상일수록 그것을 체계화할 논리는 단순해야만 오히려 오류가 없는 법이다.

본 논문은 모티프를 이항 대립의 구성 요소를 갖는 서사의 내용적 요

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이야기들 사이의 변형관계를 파악하고 이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모티프가 파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개별 모티프群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원적 대립 관계 아래 체계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모티프 분류를 위한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방대한 이야기 자료의 검토를 통한 원형적 모티프의 추출, 불변항 추출이라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더 검증되고,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영화 <데이브(Dave)>, 1993.
영화 <리플리(The Talented Mr. Ripley)>, 1999.
영화 <미세스 닌아웃파이어(Mrs. Doubtfire)>, 1993.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La Double Vie De Veronique)>, 1991.
영화 <비밀(秘密)>, 2002.
영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 1992.
영화 <아일랜드(The Island)>, 2005.
영화 <탄생(Birth)>, 1994.

2. 논문과 단행본

- 박혜영,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분신테마 연구』, 『사회과학연구』 3권 1호,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205~302쪽.
류철균, 『한국현대소설 창작론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1.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예술인류학』, 동아시아, 2009.
다케루베 노부야키, 임희선 역, 『판타지의 주인공들』, 들녘, 2000.
Claude Levi-strauss, 임봉길 역, 『신화학1』, 한길사, 2005.
Claude Levi-strauss, 김진욱 역,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3.
Elisabeth Frenzel, 이민수 역, 『세계 문학의 모티프』,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42~54쪽.
E. M. Foster,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75.
François Jost, 이호 역, 『주제와 모티프』,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127~142쪽.
Horst & Ingrid Daemrich, 장순란 역, 『모티프와 주제』,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07, 143~159쪽.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New York: Routledge, 2013.
Ovidius, 천병희 역,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도서출판 숲, 2006.
Sigmund Freud,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3.
Sigmund Freud,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Stith Thompson, 윤승준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Motif Classification Logic : Based on Doppelganger Motif

Yun, Hye-Young (Ewha Womans University)

Motif is a theme that penetrate through a narrative and repeated in human life. A story contains this kind of motif is transformed and passed down to another story. Therefore motif is a source of narrative creation. For such a reason, many scholars tried to extract universal motives from stories and classify them. But these attempts have limit of classifying motives in parallel and doesn't have coherent logic. So this study proposes classification logic by using Levi-Strauss's binarity. Levi-Strauss explains a myth as derived story from theme of life and death that is primitive to human. These lasting motives contain binary tension that sustain themselves and go forward with a plot. The binary feature of motif could function as logic that explains relationship between similar motives.

(Key words : narrative motif, doppelganger motif, Levi-Strauss, binarity, classification system)

투고일 : 2014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